

“소록도서 2박3일 자원봉사하겠다”

정진석 추기경
‘봉축메시지’

“나눔과 수행 정신 이 땅에 뿌리내리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센병환자 위문 ‘약속’ 사찰 한 곳도 없어… TV9대 쌀200포 선물

전남 고흥군 도아읍 소록도. 일제 강점기인 1916년 한센병(나병)환자 강제 수용소로 시작돼 섬 전체가 곧 국립소록도병원 원인 작은 섬이다. 국내 한센인 1만3300여 명 가운데 585명이 거주하는 소록도에는 개신교 교회 7곳, 가톨릭 성당 2곳, 원불교 교당 1곳 등 총10곳의 종교단체가 한센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있지만 사찰은 단 한곳도 없다.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지난 3일 한센인을 위로하기 위해 소록도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록도 내 10곳의 종교 시설이 있지만 사찰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자 “1700년 한국불교가 소록도 등 북지사각 지대에 너무나 소홀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면서 “나부터 2박3일 동안 소록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으로서는 최초로 소록도를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나뿐만 아니라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학인 스님들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단이 소록도를 정기적으로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짓날에 맞춰 한센인과 함께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팔죽공양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과 한센인 자치기구인 ‘소록도 원생자치회’ 김명호 회장 등 소록도 의료진과 한센인 대표와 환담한데 이어 한센인들에게 대형 텔레비전 9대와 쌀 200포대를 선물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방명록에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라는 불기 2555년 봉축표어를 적은 뒤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1700년 한국불교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못해 죄송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춰 진행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불교에서도 자원봉사를 전개할 계획인 만큼 한센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은 “한센인들은 차별과 편견속에서 힘겹게 생을 살고 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위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반겼다. 김명호 소록도 원생자치회장은 “소록도에 한센인이 정착한 뒤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방문해주고 관심을 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록도 현황을 브리핑 받고 환담한데 이어 소록도병원을 둘러보며 한센병환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3일 고흥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병환자를 위로했다.

주며 “어르신!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네며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길 기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병원을 둘러본 뒤 소록도성당을 방문해 이웃종교와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감금실과 검시실(시신해부실), 단종실(불인수술실) 등 질곡깊은 한센인들의 아픈 과거의 현장을 살펴봤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한 한국외대 불교포교담당 도제스님과 정영근 조계종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담당은 100만원의 후원금을 소록도 원생자치회에 전달한데 이어 빠른 시일내에 소록도를 다시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고흥=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2일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에 걸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특히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중, 진리와 상생의 추구 및 없었던 자비와 부단한 수행 등은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나눔과 자비의 정신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추기경은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자비의 가치관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은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추기경은 “올해 봉축행사 주제인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 더욱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눔과 수행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현수막 설치, 메시지 전달...이웃종교계도 ‘봉축’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웃 종교계에서 잇따라 부처님오신날 축하 현수막을 내는 등 종교화합을 위한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천주교 성북동 성당은 지난 1일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성당에 설치했다. 8일에는 김상사를 방문해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사 인근에 위치한 덕수교회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상사에 축하 화분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김상사와 성북동성당, 덕수교회는 종교 화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몇 년 전

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을 서로 축하해주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불우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해 공동바자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교구 수유1동성당도 ‘부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서울회계사에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밖에 삼성동성당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라는 봉축현수막을 성당 외벽에 설치했으며, 대전교구 함덕성당 학생들은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오는 10일 인근 사찰을 방문할 예정이다. 엽태규 기자

종교·계층 벽 넘어 삶의 의미 되살리다

‘노숙자 희망찾기’ 템플스테이

효의 달 5월을 맞아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숙인 희망찾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날아보자 한 번 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이웃종교인들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자비명상 전문가인 마가스님과 영등포보현의집 원장 지겨스님이 함께 해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불교, 기독교, 원불교 모임인 삼소회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해 노숙인들과 1:1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2박3일간 참가자들은 용주사 효 박물관 견학 및 부모은중경 필사체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108배, 발우공양, 타종체험, 예불 등 전통 불교문화체험 행사와 함께 영화감상, 온천욕을 즐기고 명소를 탐방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종교와 계층의 벽을 뛰어 넘어, 삶의 의미를 되살려 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ko@bulgyo.com

‘전통건축물 규제 완화’ <1면에 이어>

또 국토이용법상 일부 용도지역 내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의 비유)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폐율이 20% 이하로 한정돼 있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있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물 관련 건폐율을 30%로 완화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있는 전통사찰 및 향교, 서원 고택 등의 불가피한 증축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해당기관장의 협의한 규모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 때 부과되던 보전 부담금을 감면을 추진, 특히 전통문화건축물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정만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지난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새롭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은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그 실천 의지와 구체성에 있어서는 향후 주의 깊게 지켜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계종은 모든 문제를 정부 여당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면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불교규제 제법령의 개정과 불사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하나되는 조계종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정진을 약속했다.

‘함께 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68면 발행

섹션A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4~5면

특별법률/ 원로의장 종산 대종사 9면

가신과 새신을 위한 5대7월사 의미와 실천 현장

수행/ 광주전남불교 수요 108배기도 조찬회 12~13면

문화/ 불교문화재연구소 폐사지 조사현장 16~17면

생명/ 해군기지 반대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20~21면

나눔/ 용청사랑 · ‘보리수 아래’ 문화공연 현장 24~25면

평화/ 생활속 평화결사 실천 방편 28~29면

특별대담/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장관 31면

섹션B

부처님오신날 봉축시 1면

부처님오신날 ‘만화’ 3면

역사 속의 부처님오신날 6면

외국의 부처님오신날 7면

4형제 출가이야기 10면

탈린트 도반 조양자-김영란 11면

특별인터뷰/ 최광식 문화재청장 15면

섹션C

‘한국불교 전래길’ 실크로드를 가다 1면

‘불교 스마트해진다’ 5면

수좌스님들과 함께 하는 중국 선종사찰 순례 8~9면

부처님오신날 추천 불서 베스트6 14면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이 전해드리는 봄이야기

감성이 충만해지고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시간!
KB국민은행이 전해드리는
4가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우리가족 문화공연인들이

토요문화광장 SATURDAY CULTURAL PLAZA

- 매주 토요일 국립극장 앞마당에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 기간: 5월~9월,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 우선 시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문화공간

컬처인 KB

KB만의 특별한 문화공간

- 은행권 최초의 공연장인, 초대, 영화촬영, 우수고객 특별할인까지 다양한 문화혜택 속으로 초대합니다.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KB스타클럽
- 공연영화 할인서비스

일곱빛깔 행복메시지

KB Rainbow Humanities KB레인보우 인문학

- 고객님의 풍성한 삶을 위해 철학, 경제, 문화, 미술, 역사, 심리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고정할령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www.kbrainbow.com 접속

티켓, 몽골로의 배낭여행

star

할려진지 해의 배낭여행

- KB국민은행 star 상품가입고객 중 대학교별 1명씩 전산추첨을 통해 몽골, 티벳으로 총 44분께 해외배낭여행을 보내드립니다
- 대상신청기간: 2011년 5월 31일까지
- 여행기간: 2011년 7월 초(10일 이내)
- 자세한 문의사항은 www.kbrcostar.com를 참조하십시오

* star 상품 가입은 KB국민은행의 사정 또는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당행에 등록된 연락처(전화, 휴대전화)로 2011.5.31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합니다.
* 여행지의 최종 선택권은 KB국민은행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에 문의하십시오.
* 위 이벤트 및 행사는 KB국민은행의 사정 또는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장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0899)로 문의하십시오. 행사별 후원처 (토요문화광장: 국립극장, 공연장: 국립극장 02-220-41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